

< 남여대협 출범식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

이번 4월 29일 남총련 출범식 속에서 우리 여학단위 일꾼들은 어떻게 남총련 출범식에 결합할 것인가 대학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몇시간동안 남여대협의 판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올해는 시기적 성격때문에 하루로 정리된 남총련 출범식 속에서 여학일꾼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여대협 각 대학 일꾼들이 몇시간의 판으로 우리의 출범식을 결합할수는 없지만, 남총련 출범식을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학우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했으면 합니다. 기간 투쟁을 총화하고, 5월투쟁과 지자제 승리를 위한 투쟁결의의 판으로 이어질 남총련 출범식속에서 우리 여학일꾼들의 투쟁의 결의, 남여대협 조직으로의 각 일꾼들의 결의를 높여 남여대협의 힘을 보여줍시다.

1. 남여대협 기층 일꾼들의 의식화, 조직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우선 남총련 출범식은 단지 남총련의 출범을 알리는 의미만 담긴것이 아니라 출범식의 준비속에서 학우들을 의.조직화 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임을 명심합시다.

하루의 판으로 이어지는 출범식속에서 우리 일꾼들의 여학생운동에 대한 신심이나 남여대협 조직에대한 결의를 높게 세워내는 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범식을 준비하는 일주일동안의 시간속에서 각 대학에서 우리의 내용으로 기획 거리나 선전자보등을 통해 학우들의 의.조직화에 힘썼으면 합니다.

**** 기층 여학일꾼 1간부 2인 새내기를 조직화 해 옵시다.**

--> 이번 출범식을 준비하면서 각 대학의 소모임, 과 여부간부, 단대여학생회 간부, 총여학생회 간부들까지 모두 함께 달라들어서 새내기 조직화에 주력합시다. 단지 출범식에 오면서 새내기를 조직화 해서 데려올것이 아니라 출범식을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기획선전이나 여학우들을 만나내면서 남총련 출범식을 알림과 동시에 남여대협이란 조직에 대해서, 남여대협 의장님에 대해서, 우리의 여학생운동을 알려내는 의식화 작업속에서 1간부당 2인 새내기를 꼭 조직화 해 옵시다.

**** 여학일꾼들이 여학생운동의 신심을 높일수 있는 장으로 만들자.**

작년처럼 남여대협 판을 따로 가져갔을때에는 대학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간부들이 남총련 출범식속에서 다른 대학의 여학일꾼들을 만나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여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나 뿐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이 일꾼이라는 자신

감과 남여대협에한 자부심을 가질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시기적 성격속에서 작년처럼 대중적 판속에서 결의와 신심을 높이는 것보다는 남총련 출범식을 준비해오는 과정속에서 한 사람의 일꾼도 빠짐없이 조직화하고 의식화하여 함께 참여한다면 작년보다 더 큰 여학일꾼으로서의 신심과 결의를 높일수 있을것입니다.

**** 남여대협을 남총련 10만 학우와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자.**

출범식에 결합하면서 남여대협의 힘을 보여줄수 있도록 합시다. 각 대학에서 출범식 전 일주일동안 준비한 내용들을 함께 선전하고, 남여대협의 힘을 보여줄수 있는 군중예술을 함께 준비해 남여대협이란 조직을 단지 우리 여학생 일꾼들만이 공유할것이 아니라 남총련 10만 학우와 함께 공유하고, 인식시켜줄 수 있는 남총련 출범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각 대학에서 남여대협을 알려낼수 있는 기획선전이나 군중예술을 꼭 기층 일꾼, 학우들과 함께 고민하여 준비해 봅시다.)

**** 남여대협에서 기획하고 있는 선전내용**

--> 정신대 거리

정신대 문제 기간의 상황설명, 이후의 대책, 청년학생들과의 결합지점, 정대협의 사진전시, 할머니께 보내는 엽서 전시등 정대협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선전할 계획입니다.

--> 모든 선전 내용을 예전의 출범식과 달리 그림이나 만화 자보로 이용하자.

--> 프랑쓰기(각대학에서 출범식 결의에 대한 프랑, 남여대협에서는 총노선을 전체 프랑으로써서 학우들에게 남여대협의 총노선을 알리고, 우리 대학 일꾼들도 다시한번 각인할수 있는 계기로 만들것입니다.)

--> 의장님이 나오실때 우리 일꾼들이 함께 할수 있는 군중예술을 고민해봅시다.

가안)) 작년 전여대협 T판매를 진행하여 한장당 1000원정도 책정하여 이 기금으로 정신대 할머니들께 성금으로 보내드릴 계획을 제안해 봅니다. 꼭 토론해 주십시오.

오월의 딸 자주의 새바람 10기 광주전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출범식

오월 여성의 당찬 기백을 이어받은 자랑스런 5만 여학우여
10년 남녀대협의 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연세대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투쟁으로
김영삼 조기 타도와 전면항쟁의 주춧돌을 쌓아가자.

발 신: 10기 남녀대협
수 신: 남총련, 남녀대협 산하 각급 학생회 여학생회

출범식을 준비하면서

출범식은 단순히 의장을 웅렬하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각종 일정과 투쟁속에 바쁜 학우들을 한자리에 어렵게 모이게 하는만큼 출범식의 자리가 몇몇 운동권의 자기 잔치가 아닌 학우들에 의해 건설되었던 우리의 조직을 학우들이 인정하고 학우들이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남녀대협이 10년을 맞는 해인만큼 그 의의 또한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힘있게 남녀대협을 건설하였고 전국 어느지역 보다 튼튼한 조직력과 통일 단결의 기풍을 가지고 있는 각 대학 여학일꾼들의 드높은 결의를 남녀대협 출범식속에서 힘있게 펼쳐 내 보입니다.

그리고 97년 전면항쟁과 김영삼 조기 타도를 이야기 하는 올 한해의 정세속에서 함께하는 출범식, 투쟁하는 출범식을 만들어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출범식의 의의와 목표

출범식의 가지는 본래의 의미

- ▶ 10만 남총련 학우와 5만 남녀대협 학우들 앞에 대중적으로 남녀대협을 알려내는 장이다.
- ▶ 앞으로 남녀대협의 사업을 함께 공유하는 장이다.
- ▶ 여학일꾼들을 더욱 조직적으로 묶어세우고 결의를 드높이는 장이다.

올 한해 정세속에서 출범식이 가지는 의의

- ▶ 김영삼 조기 타도와 전면항쟁을 일구어가는 시점에서 청년 여학도를 일떠세우는 장이다.
- ▶ 연세대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고 이후 투쟁을 선포하는 장이다.
- ▶ 10년 남녀대협의 투쟁의 역사를 학우들에게 알려내고 여학생운동 10년을 총화하는 자리

출범식의 구체적인 목표

- ① 여학일꾼들의 결의를 높여내고 조직적인 결속을 강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자.
- ① 남녀대협의 10년의 역사를 가름짓는 중요한 해인만큼 남녀대협이란 조직을 10만 학우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자리를 만들어가자.
- ① 연세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고 그 포문을 여는 자리고 만들어가자.
- ① 단순한 출범식 자체판에 집착하지 말고 9일 10일 대중적인 실천활동 속에서 행동하는 출범식을 만들어 가자

Handwritten signatures and notes at the bottom left corner.

의식화의 내용과 과제

- ◆ 남녀대협이란 조직을 알려내자.
- ◆ 연세대 성추행 사건 진상을 알리고 지금까지 투쟁을 총화하고 이후 서명 모금운동을 알리자
- ◆ 반미의 관점에서 기지촌 여성 뿐 아니라 각종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탈의 내용을 알려내자.

- 남녀대협의 거리 만들 예정
- 각 대학에서 자체 거점 선전을 많이 하자.
- 조선대의 선전적 실무 부담을 각 대학에서 나누어 지자.
- 각 대학마다 알림단을 조직하여 집단 아지 선전 및 서명운동을 전개 하자.
- 단위 직선을 중심으로 저학번, 남학우 골간 간부들을 교양하자.

조직화의 내용과 과제

- 남총련 출범식이 있고 열리는 장소또한 본무대 이므로 조직화를 따로 해야 하는 부담은 없으나 충분한 출범식에 대한 교양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출범식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
- 여학단위 일꾼들을 조직적으로 묶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활동을 주자.
- 여학일꾼 한사람도 출범식 기간동안 놀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담보하고 활동을 기획.
- 조직화의 방도에 대한 내용은 남총련 출범식 기획안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출범식 흐름

5월 7일 및 8일 각 대학에서 선전작업 및 알림단 사업 및 교양 사업

5월 9일 오전 각 대학에서 조선대에 줄 선전물 수합 및 부착

2시 대의원 대회

3시 춤 노래 한마당

7시 민중연대 한마당

이후 남녀대협 결의대회를 잠을 예정입니다.

-간단한 정치연설 및 노래 율동 함께 하는 자리

★ 9일 여학간부들 활동 지침

▶대의원들은 대의원대회속에서 연세대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적으로 알릴 것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대의원울제외한 여학일꾼들은 각 대학 총여 부회장이 중심이 되어 선전사업 및 알림사업들을 내실있게 가져갈 방도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민중연대 한마당 이후 남녀대협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학우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 9시 전조 결의대회

10시 남녀대협 출범식

11시 조국통일위원회 출범식

본 출범식

2시 광전연합과 연합 집회

★여학일꾼 활동 지침

▶남녀대협 출범식 과정에서 여학일꾼들의 발빠른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후 출범식이 끝난 이후 연합 집회를 시내에서 가져가면서 광주 시민을 만날 준비들 잘해 옵시다.

▶마지막으로 조선대학교의 힘있는 결의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짧고 실제로 많은 실무일들로 부담이 많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조선대 여학간부들의 결의만 높다면, 그리고 함께하는 타 대학 여학일꾼들의 뜨거운 연대의 정이 있다면 우리는 힘있게 남녀대협 출범식을 치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각 대학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조선대의 선전실무를 함께합니다.

- ☞ 각 단대 별 2개 프랑 쓰기
- 하나는 결의의 프랑 다른 하나는 수고 프랑
- ☞ 총여의 경우는 5마 3폭의 크기로 대형프랑을 제작합니다.

자기 대학에 남녀대협 출범식에 대한 선전 내실 있게 합니다.

- ☞ 자보선전(남여대협 출범식과 남녀대협 의장 선전 연세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선전)
- ☞ 프랑선전
- ☞ 알림단을 통한 아지 집단 선전
- ☞ 직선 간부를 중심으로한 학생회실 및 회의에서 교양

남녀대협 거리를 만들것에 대한 선전

- 남녀대협 10년의 투쟁의 역사(조선대)
- 남녀대협 의장 및 올해의 활동 보고(전남대)
- 전여대협 의장 및 전여대협 총회 선전(호남대)
- 반미의 내용을 담은 선전-이기순씨를 비롯한 미군 살해 사건 및 제국주의 문화(목대)
- 연세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선전(광주대)
- 남녀대협 깃발 2폭 2마로 하얀 천에 깔끔한 글씨로(동신대)
- 각 대학에서는 자기대학 대표자에 대한 선전물을 만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지단 및 알림단에 대해서

- ☞ 각 대학에서 한팀씩 아지단과 알림단을 꾸립시다
- ☞ 대학에 붙일 선전 자보 및 유인물 폴딩꺼리들을 만들어 옵시다.
- ☞ 유인물은 남녀대협 명의로 전남대에서 만들 예정입니다.

※모든 조선대에 부착할 선전물은 9일 오전까지 조선대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대협 출범식 판흐름을 정리합니다.

- 식전 문화행사(사회:전남대 총여 부회장)
- 개회사 (본사회:광주대 총여 부회장)
- 애국 의례
- 환영사(조대 총여회장)
- 연대사(3기 전여대협 의장님과 다른 한분 섭외)
- 상황극 -연세대 성추행 사건(조선대)
- 각 대학 대표자 소개(팔들아 일어나라)
-각 대학 총여 깃발과 함께 연단에 들어선다
복장은 계량한복으로 통일한다.
회장갑과 하얀 머리띠 준비한다.
각 대학에서는 자신 대학 대표자가 나올 때 집단 마임을 준비합니다.

대표자의 감쪽쇼

의장 응립

구체적인 음악 및 흐름은 세부 기획자에게

출범식에서 준비해야 할 것

☞ 전여대협 진군가와 딸들아 일어나라 악보 대학마다 숫자별 준비

☞ 손깃발 대학 숫자마다 준비

전남대(노란색), 조선대(빨간색), 호남대(파란색), 목포대(녹색) 동신대/광주대(하얀색)

■ 마지막 잔소리

남녀대협 출범식을 준비하는 각 대학에서 자기 구도를 내오고 계획을 세워 오십시오
꼭 여기서 하자고 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남녀대협 대표자 및 여학일꾼의 자존심을 걸로 10일 있을 출범식 열심히 준비합시다.

출범식이 끝나고 나서 바로 여학간부들에게 총화서를 돌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총화해봅시다.

남녀대협의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출범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각 대학에서 남녀
대협 재정에 대한 배려 바랍니다.

기타 사항

남녀대협 출범식 점검 총화서

- 5월 7일에서 8일 ① 남녀대협 출범식에 대한 단위 교양은
여학일꾼(총여/단여/과여부) 골간 단위(총학/단대/과) 기타단위
- ②남여대협 출범식에 대한 선전은
- 자보선전
거점지역/ 단대 / 과
- 프랑선전
-알림선전(아침선전, 강의실 선전, 학생회실 선전등등)
- ③연세대 성추행사건에 대한 선전은
-자보선전
-프랑선전
-알림선전
- ④조선대 출범식 장소에 부착할 선전물은
-각 단대별 프랑 2개
-총여 대형 프랑
-악보 복사
-손깃발
-9일 10일 각종 투쟁과정에서 사용될 유인물 및 선전 자료
- ⑤ 출범식 본판 준비
-집단 마임 준비
-알림단 아지단 준비
-남여대협 결의대회(전야제 있을 후 있을 행사)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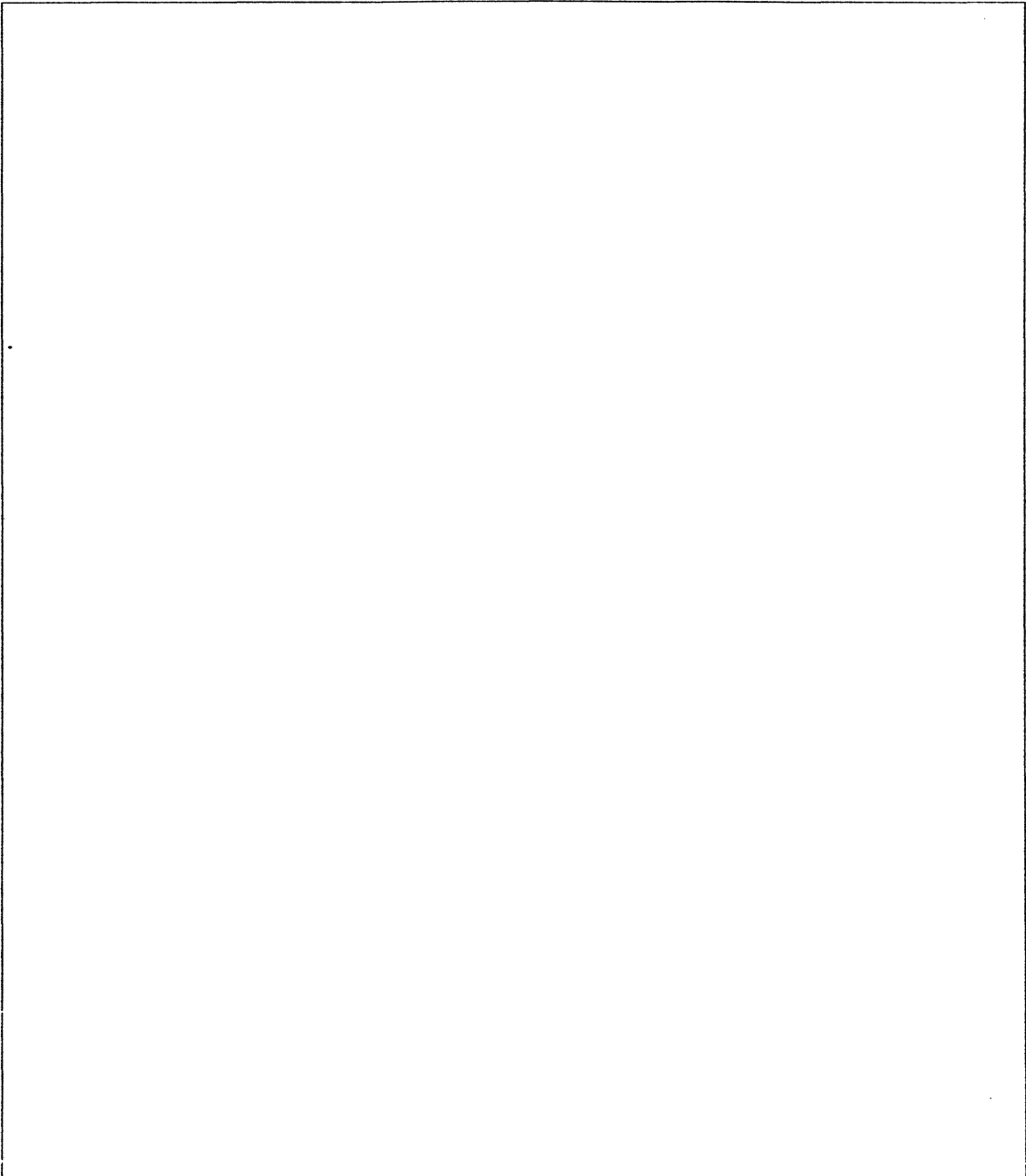
- 5월 9일 ①조선대 줄 각종 선전물 부착
②아지단 알림단 활동 정리
③남여대협 결의대회 준비
④출범식 본판 정리(사회자 정리/음악 등)

- 5월 10일 ①아침선전 및 출범식 준비
②출범식 본행사
③오후 투쟁 준비
④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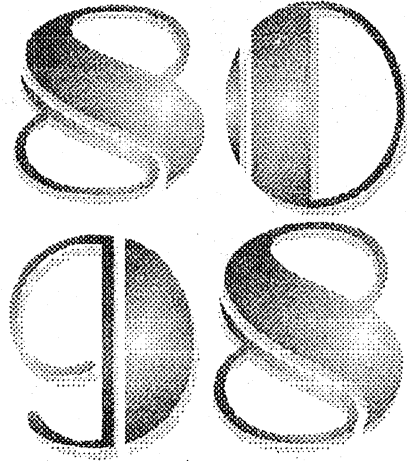
- 5월 11일 남녀대협 대표자 회의 예정
전여대협 총회 평가
남녀대협 출범식 평가
전여대협 회의 보고
연세대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투쟁 계획
남녀대협 전여대협 회비 납부 및 회계
단위 5'6월 사업 계획
남녀대협 5'6월 사업계획
전여대협 출범식

▶ 각 대학에서 남녀대형 출판식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자기대학 구조 및 계획을 세워 봅시다.

- ◆ 의의와 목표
- ◆ 의식화 계획
- ◆ 조직화 방도
- ◆ 구체적인 각종 사업 계획



남여대협 출범식 기획안(가안)



보내는 기쁨: 11기 광주전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정채실
받는 즐거움: 남여대협 신학 각급단위 총어학생회 및 단위 학생회
제 출 일 자: 1998년 5월 4일 월요일
용 도: 남여대협 출범식 준비를 위한 단위 기초자료
잡 고: 대표자 토론안

문서순서

0. 들어가며
 1. 남여대협 출범식의 의의와 목표
 2. 출범식 준비시 가져야할 자세
 3. 출범식 핵심기치
 4. 출범식 일정 및 장소
 5. 출범식을 잘 가져가기 위한 방도
 6. 선전의식화 방도
 7. 조직화 방도
 8. 출범식 실현 방도(구체적 당일 일정)
 9. 시기별 흐름 및 대화별 준비 지침
 10. 출범식 준비대학 준비 지침
 11. 세부기획안 및 콘티
 12. 기타
- 선전물 초안
교양내용

1. 남여대협 출범식의 의의와 목표

첫째로, 남여대협 출범식은 지난 10여년간의 여학생운동의 성과와 모범을 계승하고 한발더 나아가 98년 5만여학우, 10만 청춘의 투쟁과 단결의 구심으로 여대협의 위상과 역할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함으로써 여학생운동의 모범을 전파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남여대협 출범식의 일반적 의의)

둘째로, 남여대협 총회를 성사시키고 범농활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여학생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학생운동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드높이며 정치실무적 능력을 배양하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남여대협 출범식의 조직적 의의)

셋째로, 당면시기 경제침탈과 여성인권유린으로 여성의 자주성을 억압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반미자주화 투쟁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80년 5월 여성의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외세의 치욕스런 연속을 벗어나기 위한 반미구국 투쟁의 결사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남여대협 출범식의 정치적 의의)

넷째로, 농활이후 여성농민, 정리해고 문제와 함께 여성노동자들 및 이지역 여성민중들과의 간고한 연대의 틀을 형성해 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여학생운동의 드높은 투쟁의 결의가 남총련과 한총련강화로 이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로, 남여대협 출범식을 준비하는 대학운동의 발전에 일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로, 향후 통일 투쟁을 결의하고 준비해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 남여대협 출범식을 준비하는 간부 일꾼의 자세

여학생운동의 여학생운동에 대한 주체적 자세- 신념과 자긍심으로

올한해 여학생운동 단위에 있어서 남총련 각 대학의 상황(총무표, 교재두, 선거)이 맞물리면서 전체 투쟁에 함께 복무해야할 요구속에서 올곧게 여학생운동을 풀어내지 못하고 골간 투쟁속에 매몰되면서 여학생운동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악화되고 곧 이것은 여학생운동에 대한 소극성과 패배주의로 귀결되게 되는 안타까움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여대협 총회에서 일정정도 불식시켰다면 실천적인 활동으로 여학생운동의 혼란을 해소하고 여학생운동에 대한 신념과 자긍심을 갖고 전체운동에 강화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4월총회와 남여대협 총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향후 여대협의 발전적 전망을 내외야

이지역 여학생운동이 올해로 11년째에 접어들면서 나름대로 여학생운동에 대한 사상적 정립과 각 대학별 모범들이 존재하는 속에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4월 각 대학의 큰 대증사업속에서, 남여대협 총회에서 많은 성과점과 한편으로 여학생운동의 현실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과를 성과로 받아안지 못하는 모습과 한편으로 자족적으로 정체에 머무르는 모습 양 극단의 모습이 대학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속에서 올바르게 3'4월에 대한 총회와 내실있는 대증사업 평가속에서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여대협의 발전적 전망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남여대협의 기층에서부터 상층까지 조직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지금까지 남여대협은 각 대학 총여학생회장들의 모임정도로 전여대협과 단위 대학의 매개 고리정도나 아니면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위로받는 자리정도로 인식하는 낮은 수준에서 나름대로 기층여학생들에게 이 지역 여학생운동을 책임지는 단위로써 조금씩 그 기반을 넓혀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난 총회의 자리속에서 11기 남여대협 의장남을 단결의 구심으로 각 대학 총여학생회장의 협의체 수준에서 좀더 확장하여 단대 여회장까지 함께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가능하다면 과여부장까지 그 범위를 넓혀 여학생운동의 조직, 사상적 수준을 높여내는 자리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모범과 모범을 5만 여학우, 10만 청춘의 가슴에

어려운 단위의 실정 속에서, 적은 수의 간부로 하지만 누구보다도 뜨거운 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학생운동의 모범을 일구어온 숨은 여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우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여학생운동을 모범적으로 전개한 수많은 단위의 모범을 함께 공유하고 전체화 시켜내는 소중한 자리에 각 모범을 가슴에 담겠다는 결의로 준비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관중심이 아닌 투쟁을 일구어가면서 마지막 총회의 지점으로서의 여대협 출범식이 귀결될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서부터 모범을 만들어 갑시다.

대학 여학생운동 발전의 일대 전환기로

출범식을 통해 대학교의 과여부, 단대 여학생회, 총여학생회로 이어지는 여학생회 골간체계가 강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총회를 받아 안는 대학 여학생들은 총회를 대중적으로 준비하면서 자기 대학 학우들과 일꾼들에게 신심과 대중적 기반을 펼쳐낼 수 있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다른 대학일꾼들의 경우 대학의 운동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학우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여학생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대학의 간부일꾼들과 10만학도가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균중적인 자리로

전여대협 총회와 남여대협 출범식전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전체 대학일꾼들과 학우들의 관심과 기대속에서 준비되고 개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 대학의 실무적 하중으로 총회와 출범식이 떠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선전에서부터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준비를 전 대학이 함께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면 정세속에서 반미 자주화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는 투쟁의 자리로

총회와 출범식의 모든 내용은 당면 투쟁을 잘 풀어내기 위한 것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단순히 일꾼들끼리 재미있게 노는 자리가 아닌 서로서로의 결의를 높이고 민중들의 아픔과 분노를 직시하는 속에서 여학생들의 투쟁을 일구어가는 자리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전개되던 300차 수요시위속에서 정신대 문제 해결하라는 여학생운동의 투쟁의 성과가 일정정도 정대협과 새정부의 정신대 문제 해결의 노력으로 견인했던 성과를 받아안고, 각 대학에서 유행처럼 퍼지는 반미생활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갔던 지난 시기 모범을 바탕으로 더욱 반외세 구국 투쟁속에 여학생들이 선봉에 서서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남총련과 한총련 강화들 과여부에서부터

특히나 이지역의 경우 한총련 탈퇴 총투표나 기자회견등을 통해 참여와 투쟁포기를 설파하는, 그 속에서 우리학우들의 시선을 흐리게하는 흐름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정한 우리 조국의 현실적 요구인가가 무엇인가를 직시하며 온갖 탄압에도 꿋꿋히 자리를 지켜왔던 남총련과 한총련 강화에 썩기를 막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내기와 골간일꾼등 광범위한 우리일꾼대중을 남여대협의 너른 품안에

새내기들이 칩제히 왜곡된 환경속에서 생활을 보낸 지난날을 벗고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것입니다. 98새내기들은 앞으로 운동을 책임질 귀중한 동남이며 올한해 투쟁에 펼쳐 일어셔야할 대중이기도 합니다. 한편 함께 변혁의 길을 가고 있는 골간일꾼들도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광범위한 대중을 묶어내기 위해 스스로의 준비를 다져가는 자리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남여대협 총행사를 준비하다 //

* 총회, 출범식이 실무적임을 중점으로 여신 구체적 투쟁과 시합에서 또 광범위한 연대 구축이나, 결투를 구성, 투쟁으로 끌어내자!!

3.남여대협 출범식 기치

"5월 여성당개!!
자주의 새벽을 열자"

이른 아침 꼭두새벽부터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하던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80년 5월 여성민중의 강인한 투쟁의 모습처럼
IMF시대 국가의 자주권이 땅에 떨어지고 여성민중들의 삶이 피폐화될 일로를 겪고 있는 지금 가장 어려운 순간에
늘 새벽처럼 깨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미

80년 5월의 의미와 당면 투쟁의 내용을 적극화 시켜내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4. 남여대협 출범식 장소 및 시간

장소: 민족 전담대학교

시간: 반미자주화의 해 5월 17일 오전 10시

지참물:

5.대화별 출범식을 잘 가져가기 위한 방도

의미있는 이야기를 던지며

출범식을 왜 하는가

출범식은 단순히 문예공연 몇 개 준비하고 의장님 응접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고의 대중적인 자리에서 당면시기 투쟁의 내용을 서로 합의하고 하나가 되어 실천적으로 투쟁을 벌임으로서 정치적, 조직적성과를 극대화하는 종합적인 집단예술, 집단 투쟁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출범식은 민중의 편에서서 민족자주권을 쟁취하려는 세력에게 있어서 참으로 많은 난관이 조성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대학 총여회장님들은 특별한 혐의도 없이 직책을 가진 이유로 수배되고 여전히 입꾼들은 말도 안되는 광안의 논리 속에서 잡히기는 현실과 대하마다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맞아내며 악한 조직적 기분을 키워내야 하는 집단 여대협 출범식이 갖는 의미를 명확히 우리 입꾼들의 심장에 새기지 못하면, 당면 투쟁의 정당성과 요구들이 뇌리에 박히지 않는다면 다만 출범식을 또하나 일지에 써넣는 입장하나로 전락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범식을 왜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지, 진정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밝히면서 우리 입꾼들이 각성되고 가슴으로 받아안았을 때만이 출범식은 성과있게 치루어 질수 있습니다.

98 남여대협 출범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입꾼들의 가슴가슴에 출범식 성사와 당면투쟁에 대한 요구를 높이는 것입니다

각 단위별 5월 사업계획을 명확히 내읍시다.

각 대학별로 단위 일정과 현재 일꾼들의 준비정도 등 참으로 많은 일정과 나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칫잘못하면 대의원대회, 출범식, 오월 투쟁속에서 단위별 아무목표없이 다만 몸대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각 단위별 명확한 5월 사업계획을 내읍시다.

적어도 5월 7일이전에 모든 대학/ 단위별 사업계획 무슨 일이 있어도 전부 세워냅시다. 실정이 어려운 단위는 직접 일꾼이 그단위에 들어가 함께 세워 봅시다.

98봄농활 총화와 남여대협 출범식/진여대협 총회 사수를 위한 간부일꾼 힘다지기 대회

■언 제: 5월 7일 내지 8일 쯤

■내용 및 형식: 각 대학별로 창조적으로

■의 의

농활이후 봄농활의 성과를 각 마을 주체까지 함께 전 여학일꾼들이 참석하여 올바로 총화, 이후 여성농민내투쟁을 결의하고 모범을 총화하는 자리

당면시기의 여학단위 및 전체 정세를 합의하는 자리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반미자주화/정신대문제/ 통일투쟁의 내용까지

남여대협 출범식과 진여대협 총회 참가 및 사수를 결의하는 자리

남여대협 출범식 알림단 발대식

■실현 방도

작년 5'18때 류제를 열사 비디오 물이나 반미, 정신대 문제 비디오 시청고민

즐거운 농활 뒤풀이 시간 및 실천투쟁까지 가미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농활기간 내지는 해단식때 미리 일정을 공고하고 여성농민회 분들까지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체 일꾼 결의대회에서 꼭 발언할 수 있도록 미리고민해도 좋겠습니다.

경제상황.

~~공정관~~ ~~경제상황~~과 차별정리예고 반대, 주한미군철수, 온거레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11기 남여대협 출범식 알림단!! (가림지간.)

이번 출범식의 뜻은 알림단 조직화에 있습니다.

단순히 여대협 출범식을 준비하는 대학에서 자봉단, 문예단 꾸려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대학에서 위의 내용으로 알림단을 조직합니다.

■활동의 방식으로는

대학마다 알림단을 구성, 알림단장을 세우고 중앙 남여대협 주체와 총화할 예정입니다.

광주지역 그리고 각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 예정

학내 선전활동 (아침선전/강의실 선전/기숙사 선전등의 학우 만나기/대자보 쓰기등)

학외 선전활동 (여성단체 방문/ 주말 농활/ 거점지역 선전 / 학교주변 선전/여학단위가 없는 대학선전)

-김영삼 체포결사대와 부분적 결합을 고민해보기도 합니다.

고수영/

출범식 준비 (출범식 때 공연할 분예발 준비)

기타 각종 활동

뒤에 일정 참조

5월 8일까지 전체 조직화

가능하면 5월 7일 여학일꾼 힘다지기 대회때 발대식을 하고 5월 8일 남총련 판에서 함께 발대식을 했으면 합니다.

■알림단 구성방식

남여대협 알림단장 (대과 총여 부회장 내지 단대 여학생회장장 임인 정도 고민)

알림단장 (각 대학 단과대학 여학생회장)

교양, 실무주체 (각 대과 총여학생회 간부)/알림단원 (제한없음)

✓ **공정한 IMF재협상과 차별정리해고 반대, 주한미군철수, 온거레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11기 남아대협 출범식/남총련 대의원대회 성사를 위한 여학일꾼 1백인 결의서**
얼하루 투쟁

전체 이지역의 과여부장까지 대총 여학일꾼들을 잡아보면 백여명 정도됩니다.
 이지역 전체 여학일꾼들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출범식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그리고 조직적 성과로 남기기 위하여 전체 여학일꾼들의 11일 투쟁을 선포합니다.
 투쟁첫날 전체 일꾼들의 결의서를 쓰고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매일 총화 점검 하면서 하루 하루 진행해 봅시다.

■ 11일 투쟁이란

11기 남아대협을 상징하는 11이라는 숫자와 함께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열흘 하고도 하루동안 이지역 여학일꾼들의 결의를 백배로 높이면서 여대협 출범식을 준비해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3'4월 대중사업과 투쟁의 성과를 이어내면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투쟁에 우리 여학일꾼들을 주동해 내세우면서 투쟁과 출범식을 준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 기 간: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 활동 방식: 대학별로 실정에 맞게, 알림단활동과 맞추어서 일정 제출
 아침선전/새벽 풀링/ 거점선전등등
- 구체적 활동과 일정 내용 제출

#하루 활동지침 (남총련 지침에 근거하여)

5시	30분	기상
6시		숙소 정리정돈 및 씻기
7시		새벽 선전전 진행(공단, 시장, 학교인근 주변, 도서관 선전진행)
8시		아침식사
9시		아침선전전 진행/ 아침선전후 전체일꾼 지침 정리
10시		아침조회(하루 계획세우기)
12시		학우만나기 진행
14시		학내 거점선전진행과 점심식사
17시		학우 만나기 진행
19시		학내 거점선전전 진행과 저녁식사
21시		저녁 총화회의 진행(사상비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일에 대한 구체적 분공 진행)
24시		개별라습 진행과 내일 개인분공사업 진행(선전불 쓰기 / 편지쓰기/하루 총화서쓰기) 간부 대중소식과의 만남 진행

- 모든 요일은 학우만나기 투쟁은 일상적으로 진행합니다. (화요일은 특히 강조일)
- 모든 일정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투쟁일정입니다.

대표자 활동지침

- 생활과 투쟁의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 5월에 맞는 집단활동을 전개합니다.
- 집단생활이 가능한 단위에서는 5월 11일부터 집단생활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대표자님들의 활동은 각 대학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이 직접 총화지도 하셔야 합니다.
- 대표자님들은 명찰을 착용합니다. 또한 정복을 착용하셨으면 합니다. (검정색 바지에 하얀 티셔츠 및 정장)
- 도서관, 기숙사, 학생회실, 식당, 교수실 방문과 강의실 선전활동을 벌이셔야 합니다.

#간부일꾼 활동지침

- * 열사에 대한 의리를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복장단장·절주에서부터 생활을 다잡고 조직생활을 비롯한 투쟁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 5월시기 전 간부일꾼에게 있어 명찰, 서명화일, 유인물은 필수입니다.

- 조직생활을 철저히 합니다. 아침생활혁신운동을 비롯한 조직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 학우만나기 총화서를 마련하고 학우만나기를 적극적으로 벌입니다.
- 하루 1 대자보 쓰기 운동을 생활화 합니다.
- 열사의 부모님과 교도소 동지들에 편지를 씁니다.

총화

- 매일매일 농합식 간부군중혁신운동을 총화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작성해서 학생회실에 붙여놓고 진행합니다. (예 기상시간 그래프, 1입 30씩 채워기 운동 그래프, 간부 대강조직 그래프, 학우만나기 그래프, ... 등)
- 주총화회의 때마다 농합식 간부 군중혁신운동에 대한 평가표 진행하고 강력한 사상투쟁을 진행합니다.
- 주총화회의 때마다 농합식 간부 군중혁신운동 모범간부를 선정하고 따라배우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 2주에 한번정도 각 총련별, 각 학교별 중앙위나 중앙상임위, 상집총화대회를 통해 농합식 간부군중혁신운동에 대한 총화를 진행합니다.

√ 광주시민과 10만 청춘에게 알리는 518장 대자보 쓰기 운동

남여대협 차원으로 17, 18일 집중적 활동을 위하여 대학별로 학우들과 일꾼들과 함께 직접 대자보를 써서 전체 행사때 가져오는 것입니다.

5'18이라는 의미에 맞게 518이라는 상징적 숫자를 매개로 하여 80년 그때를 회상하며 학우들과 간부들이 한 장씩 직접 당면 투쟁의 내용으로 대자보를 써보고 이것을 광주 시민과 함께 해 보는 것입니다.

대학별로 대자보의 분량을 정하고 단위까지 날을 정해 함께 선전의 날을 기획해 봅시다.

여성양심수 석방과 공안탄압 중지의 내용으로 선전 활동

목포대 전행란 학우를 비롯한 여사의 인권탄압을 알려내자

교도소에 있는 여성양심수들

고민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가협과 수배자, 구속자 어머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볼 려고 합니다.

남여대협 출범식 선전 비디오 제작

"여성의 힘으로 계승하는 민중 항쟁"

-남여대협 출범식에 130만 광주시민, 10만 청춘을 초대합니다

여민협에서 고민하는 비디오 제작과 함께 이지역 영상일꾼들과 출범식선전용으로 기획합니다.

여성노동자/여성농민회/지역단체의 축하 성명 조직화

각 농합지역 또는 알림단의 주체적 활동으로 성명을 조직화 해 봅시다.

교수님과 학교 근처 가게아주머니 초청사업

정치 여론사업

이지역 여성단체와 함께 고민하여 평화적인 대의원대회 성사와 이지역 현안문제를 함께하여 기자회견이나 성명서를 조직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월 여성제와 맞추어서

기지촌에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수익사업과 활동 고민

비권 총여학생회와 여대협과 잘 연결이 안되는 대학도 광범위하게 망라하자

남여대협 출범식과 전여대협 총회에 맞추어서 각 단위별 총노선과 당면 정세에 대한 교양 해설, 직선대표자를 중심으로 간담회 /학내 선전

반미생활운동을 적극화 합니다.

이스트팩 안매기 운동-태극기 던져주기 운동 및 단입기 뺏지 던져주기

반미 조형물을 만듭니다.

-외제물건을 모아서

반미 바닥그림 그리기

반미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가지고 다양한 생활 문화 운동을 출범식 하기 전까지 펼쳐 봅시다.

(커피, 콜라 마시지 않기/ 성조기 그려진 옷 입지 않기/ 외제물건 쓰지 않기)

6. 선전의식화 방도

단순히 출범식이 있다는 일정전달식의 선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한미군범죄의 문제나 여성양심수 문제, 반미의 내용들을 결합한 선전물로 고민하여 만들었으면 합니다.

◀ 포스터 선전

남여대협 출범식을 알리는 포스터 제작 배포

단순히 일정을 전달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포스터가 아니라 벽자보 형식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학우 의식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5월 11일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각 과실 및 거점/시내에 선전했으면 합니다.

◀ 통큰 선전

-대형 프람 제작

통크게 제작하여 대학에서 가장 잘 눈에 띄는 곳에 걸어봅시다.

대형 프람이 아쉬운 경우에 일반프람을 연속하여 붙이는 방도도 고민합니다.

(광주대에서 총회할 때 광주대 들어오는 입구에 선전했던 것처럼 ...)

-1단여벌 1개 프람 걸기

(색깔과 형식을 맞추어서 전 단대별 걸면 좋은 선전물이 될것입니다.)

프람색은

-1개과 1자보쓰기 (과여부장님 있는 곳을 중심으로)

내용은

우리 누이 다죽이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내용

우리 엄마 허리 휘게하는 가혹한 경제수탈 IMF재협상을 실시하라

민족00대 여학우 단결하여 남여대협 출범식을 성사시키고 남총련을 강화하자

고통분담 감요탈고 자립경제 수립하자

반여성정권 김영삼을 감옥으로

남과 북 하나되어 정신대 문제 해결하고 조국 통일 앞당기자.

인권의 사각지대 여성교도소 처우 개선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80년 5월 여성 후에답게 00대 여학우 하나되어 주한 미군 몰아내자

◀ 기본선전

전공강의실/과학생활실/회장실선전/도서관/기숙사 선전

자보 선전

◀ 각 대학별로 남여대협 출범식과 전여대협총회 선전까지 함께하여 유인물을 만들어 봅시다.

여대협에서 유인물 초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 대학 방송국, 신문에 알리도록 합니다.

신문사에 알립란이나 광고란 및 기사란을 이용합니다.

당면 여성의 문제를 가지고 일간지 및 주간지, 말지등에 투고해 봅시다.

◀ 기획 선전

각 대학마다 포스터와 함께 기획지리 미 서기

기획거리 내용은 작은 마당에 잘 실려 있습니다.
반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부대행사와 함께 기획했으면 합니다.

◀영상선전

여학생운동의 역사 및 여성들의 투쟁의 현상이 담긴 비디오 영상물을 상영
주한미군 문제 관련하여 각 대학별, 소모임별 작은 영화제
주한미군 범죄 관련 비디오
-주미본에 연락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신대 문제 비디오
-대학별로 거의 하나, 둘 씩은 가지고 있지요
남여대협 출범식 선전 비디오 찍어서 상영예정

◀여대협의장님/남여대협 총노선 일립선전

11기 남여대협 의장님을 알리는 선전물 게시
남여대협의 1년 총노선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선전합니다.

7. 조직화 방도

조직화는 여대협 산하 모든 여학일꾼, 새내기 골간일꾼까지
남여대협 강화와 여학생운동에 대하여 관심있는 일꾼들은 누구나 다

단순히 여학일꾼 몇몇히 소리소문 없이 치루는 출범식이 아닌 이지역 여학일꾼과 10만 학우의 의지가 담길 수 있
도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총련 출범식과 대의원대회가 함께 열리는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직화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일요일이고 오전이기 때문에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 학우들이 집에 가거나 전날 행사로 피곤해 하
지 않기 위해서 각 단위별 일정 정리와 대학별 길의가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구체적 조직화 방도

위에서 제출한 총회를 잘 가져가기 위한 방도를 잘실현해가는 과정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대학 회의 구조와 총화구조속에서 여대협총회와 출범식을 잘 알려냅시다.

이번 출범식은 남여대협과 남총련/ 해당대학과 원활한 논의 속에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대협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제외하고는 함께 조직화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되어야 하기에 꼭 대학 총화구
조를 잘 활용합니다.

중앙운영위/단대 운영위/총여운영위/ 국'특장회의/세로모임/ 파빌 조. 종례시간

일꾼 조직화

여학일꾼들과는

일립단 조직화

총회와 남여대협 출범식을 준비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중앙을 중심으로 활동

골간일꾼들과는

여대협 출범식과 총회의 의의에 대한 교양과 해설

여학일꾼들의 단위 일정에서의 배려

과까지 전여대협 총회와 출범식에 대한 일정 및 활동 보장

일립단 조직화까지 함께

단위의 사업과 여대협 총회와 출범식에서 걸리는 문제 융통성 있게 배치

총여 및 단위에서 준비하는 사업에 적극 함께 끌어낸다.

최고의 조직화는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과회장님 과여부장님 직접 발로 뛰면서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알림단 조직화가 생명입니다.

이번 출범식에 승패여부는 알림단이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급히 1차, 2차 알림단을 꾸려서 활동력을 배가하고 모범을 만들와십시오.

단대여학생회장님들의 높은 활동력이 필요합니다.

.여대협 출범식과 총회에서 가장 활동력이 높아야 할 분들은 단대 여학생회장님입니다.
이번 기회를 단위 여학우들을 발동하고 자기 운동의 발전을 내오는 자리로 만들어 보십시오.

전체 조직화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방도

초청장 발송

강의실 선전

8. 출범식 실현방도

작은마당

◀ 각종 전시 기획전

반미의 거리(여성 열사와 미군 범죄에 살해된 여성 사진 및 기사)

생활 문화 운동의 내용

기지촌 활동 내용까지

80년 오월 여성들의 활동과 탄압상

김영삼의 5년간의 반여성 행적

남여대협 11년의 역사거리/전여대협 거리

정신대 문제 해결 투쟁 거리

통일의 거리

(자주교류내용)

여성노동자의 거리(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암십수 석방 및 인권 거리

성폭력 관련 거리 매춘, 학내 성폭력의 내용으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선전

여성농민문제

부대행사를 고민합니다.

실정에 맞게 대학별로

◀ 여대협에서 제출할 문건 및 선전 자료

남여대협 출범식 기획안

출범식 선전자료

포스터

초청장 또는 엽서

유인물-신문형식으로 2종류

입금교양지

직관물

큰마당

출범식 판호물

80년 오월여성의 당찬 투쟁의 모습과 현장을 98년 오늘의 우리 사회속에서 다시한번 그의미를 되살려

반미자주와 통일투쟁에 함께 나설수 있도록 반미 애국을 머리와 심장에 새기는 출범식의 관으로

남여대협 출범식 현장에서 전체실준들과 함께 감동적인 기록!!

식진행사

가장행렬과 함께 사회장 등장

개회사

민중의례 (전여대협/민여협)

내외빈 소개

축하공연

알림단 활동 보고 및 공연

[각 대학 총여회장 웅립]
의장님 웅립

세부판 이후 제출

기혁안 결정시 더욱 고민해야할 사항

민여협에서 주최하는 5월 여성제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논의 되어야 합니다.

5월 각단위 일정을 총화한 후에 단위에서 나서는 사업과 어떻게 잘 결합해 들어갈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전여대협 총회와 맞물리는 시점속에서 전여대협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남총련과 남여대협 준비대학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출범식을 치를 대학의 중앙조직 및 총학생회와 논의 해야할 필요

비권 총학생회와 여대협과 인계가 잘 되지 않는 대학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

주문사항

출범식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점검하시고 결정하여 주십시오

출범식과 전여대협 총회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십시오

시기별 흐름 및 대학에서 준비하여야 할것들

5월 18일까지 여학일꾼 긴급 활동 지침

뒤에 첨부

9. 시기별 흐름 및 대학별 준비지침

인여협 회의 (8월 28일 제 2차) 방송활동화 지 8월 21

	5월4일(월)	5일(화)	6일(수)	7일(목)	8일(금)	9일(토)	10일(일)	기타
남 여 대 협	능활 해단식 능활 총화 관련 점검 출범식 기획안 배포 (총여단위) 남총련과 논의 남녀대협 대표자 기획안 토론 확정	남총련 집행 총화자 회의때 기획안 배포 남녀대협 기획단 회 의 예정 (재보에 총여) 출범식 준비대학과의 간담회 및 여대협 일 정 정리	남녀대협 출범식 대학과는 이후 기획단 꾸리기 준비대학 총/중앙과 이야기 각 대학 점검 예산 확보 (전대) 옷갈기 3차 NY중앙위	남녀대협 방송활동화 (전남대 6시) -일정상 변경가능 일꾼자료집 만들기 직관물말김 유인물 만들어 말김	남총련 집회예정 (김영삼2차 체포결사대 발대식) 남녀대협 출범식 1차 점검 *NYD회의* 유인물 배포 직관물 배포(가능한한) 포스터 기획 말김 NYD1문예성.	시내선전 포스터 말김		
대 학	방송활동 총화 점검 남녀대협 출범식 기획안 받음 5일 회의 조직화	총여간부 긴급회의 (방송활동 총화와 출범 식/ 총회전으로) 총여운영위 소집.	각대학 긴급 총여운영위 대 학별 방송활동 총화 및 문건 수거 출범식 기획안 배포 알림단 조직화	각 대학 중앙과 논의 각 대학별 힘다지기대 회 1차 알림단 발대식 (알림단장 선출)	전체 알림단 집회 때 질결 알림단 활동 시작 대학별 선전 시작	선전포랑/기획자보 쓰기	주총화 및 다음주 계 획세우기 선전실무일 마저하기	
대 학 별 일 정				←	← 사범대 →			
알 림 단	알림단 조직화	알림단 조직화	알림단 조직화	대학별 알림단 1차 조 직화 및 알림단장 선 출	남녀대협 차원 알림단 1차 모 임 전체 알림단장 선출	시내 선전 / 주말농 활	주말 농활	
나 는		* 1차 회의 관련 준비사항	1차 / 2차	1차 회의 (초당)	1차 회의			

← 남 여 협 사업계획 1차 주당. (고민해결) →

← 1차 회의 대 회 →

225-6078



	5월11일(월)	12일(화)	13일(수)	14일(목)	15일(금)	16일(토)	17일(일)	기타
남 여 대 협	출범식 티 배포 포스터 배포	← JYDH 여자팀 오실 여강	남여대협 출범식 2차 점검 2차 유인물 만들어 맡기기 직관물 만들어 맡기기 -	한총련 동시다발 총 궐기 2차 유인물 배포	JYDH 남여대협 출범식 최종 점검 전체 집결	JYDH2 남총련 대의원대회 남총련 출범식 전 야제	결전의날 남여대협 출범식 (오전 10시부터)	
대 학	포스터 1차부착 대학별 집중 선전 시작 기획자보 선전		전대학 이동총여 518장 자보쓰기 운동/반미 생활운동집중 전개	대학별 최종 점검 결의를 최대한 확보	조직화 마니마니 해서 장소로 올것			
대 학 별 일 정			324 · 2성대 학대동영위 (4시) · JYDH 중성C(시) · NYDH 대의원회의 (6시)	✕				→
알 림 단	알림단 2차 조직화, 학내 선전 출범식 문예공연 준비/ 연습	여성 단체 방문	학내 선전	시내 선전/단체방문	남여대협 출범식 실무 준비			
남 여 부								

◀남여대협 출범식준비에 꼭 이것만은 합시다!!

-각 대학마다 남여대협 출범식 알림단을 만듭시다.

물론 대의원 이하 각 과여부장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학우들과 대중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알림단을 만들어서 총회내용도 알려내고 당면해 있는 투쟁의 내용도 알려봅시다.

-남여대협 출범식 성사를 위한 내용과 반미투쟁, 한총련 대의원대회 사수와 함께하여 명찰을 만듭시다.

명찰을 예쁘게 만들어 전일꾼들이 함께 달고다니면서 선전과 함께 간부들에게 의식화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남여대협 출범식에 대한 교양을 내실있게 해냅시다

-각 대학마다 11일 전투/518장 대자보 쓰기운동/반미 생활운동을 꼭 진행 합시다.

출범식 준비흐름

1시기 (5월 8일까지)

농활 총화와 간부일꾼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간부일꾼 의식화

각종 회의, 총화구조 선에서 공유하고 실천 계획 세우기

2시기 (5월 14일까지)

알림단/11일 전투속에서 학내/학외 선전활동 적극화/교양

3시기 (5월 18일까지)

총궐기와 15일부터 있는 일정에 적극 결합

출범식 판호름 당일 지침

알림단의 문예공연 연습 및 준비 시키는 것

대학별 기획자보/조형물 등의 선전물 가져오는 것

대학 총여회장님 선전물 가져올 것

총여, 단여 깃발/ 하얀 손장갑 또는 손깃발(선전의 유력한 방도)/ 대형 피켓 (스티로폼으로 아주 유용하게 만듭시다)/ 518장 대자보 및 선전물

모자, 저녁대비하여 두꺼운 옷, 비상금, 편한 신발

남여대협 출범식 기획안

그대의 눈빛과 가슴과 그리고

이제는 그대의 주먹이 필요하다

남여대협 5만여학우의 주먹으로

민중을 일으키자!

결반의 주먹이
민중을 일으킨다!

모집대상 : 12기 남녀대협
발송대상 : 각 단위 여학생회
제출일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 5월 9일

장소 : 조선대학교 1.8광장
일시 : 5월 15일

오월의 딸 자주와 새바람

12기 광/주/전/남/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0. 들어가며

▶미제국주의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시련을 온 몸으로 받아안자!

많은 사업과 일들이 제기되면서 한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모든 투쟁의 목표는 자주, 민주,통일이고 우리 분단된 조국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미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미제가 우리나라에서 버티고 있는 한 우리의 여성들은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압니다. 실업자 800만시대를 넘어서 이제 여성실업자 조직이 결성될 정도로 힘든 나날들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들, 농가부채로 그리고 농협조합원 1인 제한으로 이중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농민들, 그리고 4학년은 예비백수로 통하게 되는 여학우들.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제는 압니다. 함께 있어 우리 여대생들은 우리가 곧 여성농민이고 여성노동자임을 자각하고 온 몸으로 받아안아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여학일꾼의 투쟁성과 강인함을 다시한번 보여주자!

역사는 민중의 자주성에 의해 개척됩니다. 그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자연스레 흘러가듯이 역사는 개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자주성은 민중이 자기자신의 운명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높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자각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학습과 투쟁을 통해서만이 자각이 자각을 불러일으켜 실천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역사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여성들과 우리 여학일꾼들의 투쟁성과 강인함을 자각하고 지금 투쟁이 필요한 시기 우리의 주먹을 쳐들어 보입시다.

1.남여대협 출범식의 의의와 목표

▶의의

조직적 의의 -오월 투쟁을 힘차게 결의하는 자리이다.

-1학기 투쟁의 중간 총화의 자리이다.

-여학일꾼들의 기량을 발휘하여 조직적 역량 배가를 가져오는 자리이다.

대중적 의의 -범국민투쟁체를 건설하는데 있어 여대협 단위의

민중연대의 장을 만들어가는 자리이다.

-많은 학우대중에게 반미구호와 김대중정권 퇴진을

다시한번 각인시키는 자리이다.

▶목표

1.선봉대의 조직화에 총력을 다하여 오월투쟁에 2배가의 사람을 남기자.

2.불붙는 여학일꾼의 투쟁으로 출범식을 꼭 성사하자.

3.연대투쟁의 기틀과 그 기본적 준비를 하자.

2.출범식의 상

민중연대의 장으로 가져가면서 민중들의 투쟁을 몸소 느끼고 이후

오월투쟁을 힘있게 결의하는 모습으로!

절반의 주먹이 민중을 일으킬 수 있는 투쟁하는 남여대협 출범식으로 가져가자,

3.출범식 준비시 가져야할 자세

1.투쟁의 연속 속에서 따로따로 사고하지 말자!

계속되는 오월투쟁! 오월달 어느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습니다. 농활을 갔다오자마자 동맹휴업이고 동맹휴업 끝나면 바로 출범식이고 또 바로 오월투쟁이고 한총련출범식, 전여대협출범식...휴-.말로만 하기에 너무나도 바쁜 오월입니다. 그런만큼 우리들의 결의와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허나 자칫 잘못하여 이 모든 투쟁을 따로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농활에 조직화되었던 새내기들을 바로 동맹휴업으로 그리고 출범식으로 그리고 5.18투쟁으로 꾸준히 만나면서 하나의 투쟁임을 각인하고 새내기들을 조직화하는 문제를 간과하지 맙시다.

2.낮에는 학우만나기,실무일은 저녁에 하자!

동맹휴업 성사가 곧 출범식 성사이고 출범식 성사가 곧 오월투쟁의 승리입니다. 그만큼 출범식은 오월투쟁에 있어 큰 의미입니다. 아무리 실무일을 축소한다고 해도 프랑쓰거나 선전하기등의 실무일은 조금이라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무일을 핑계로 학우만나기를 게을리 한다면 출범식은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투쟁하는 출범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우들과 함께 해야하고 학우들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 여학일꾼들이 발로 뛰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학우들과 함께 수 있는 낮시간에는 학우들을 만나고 실무일은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하도록 합시다!

4.출범식 핵심기치

절반의 주먹이 민중을 일으킨다!

기치해설

절반의 주먹이

절반은 우리 여학우들입니다. 세상의 절반을 이루고 있는 여성들, 학원내에서 절반을 이루고 있는 여학우들의 주먹입니다. 눈빛이나 가슴도 중요합니다. 허지만 눈빛과 가슴은 그저 느낌을 가지고 깨닫는 것에 불과하지만 주먹은 우리의 실천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제는 절반인 우리 여학우들의 행동인 '주먹'을 치켜들어야 합니다.

민중을 일으킨다

오월달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그리고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5월광주항쟁의 반미정신과 더불어 미제축출을 외쳐야할 때입니다. 우리 절반의 주먹이 선봉에서 치켜들어질 때 바로 민중들의 투쟁은 기름에 불이 붙듯 견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속에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 왔듯, 언제나 역사속에서 투쟁의 선봉에 서서 민중들을 일으키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아 왔듯 우리의 역할을 본때있게 해냅니다.

5.출범식 일정 및 장소

일시 : 5월 15일 출범식 전야제

장소 : 조선대학교 1.8광장

6.출범식을 잘 가져가기 위한 방도

▶오월 사업계획과 구도를 짜고 일꾼들의 합의를 만들어오자.

각 대학 총여학생회에서조차 아직 오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자는 하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일꾼들과 합의하는 과정을 꼭 만들어냅시다.

▶학우만나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봉대에 목숨걸자!

*선봉대 활동지침 참조.

선봉대라고 하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학 일꾼 모두가 선봉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학생회가 잘되고 그리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선봉대로 결의합시다.

7.선전의식화 내용과 방도

의식화 내용

▶오월항쟁과 여성에 대하여!

-반미구호에 대한 여학단위의 전문적 투쟁, *오월항쟁과 여성 VIDEO.*

▶김대중퇴진에 대하여!

-김대중정권의 반여성정책에 대해

▶미제축출에 대하여!

-미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우리여성들이 겪어야했던 고통에 대해

▶우리 할 일에 대하여!

-여학우들의 투쟁성과 그 역할에 대해

*구체적 교양자료 내용 참조

선전끼리 * *대항쟁을 이끌고 나가*
* *NY에 여학우에게 드리는 글*
* *각각 시범게 드리는 글. 학우들끼리*
* *초청장*

▶프랑선전

-총여:정후문으로 해서 2-3개의 연속프랑

-단여:동맹휴업,출범식,오월투쟁에 관련 거점지역 프랑 1개 선전

▶자보선전

-단여와 과여부:출범식일정, 남여대협 의장님선전

▶강의실 선전

-전간부 모두:동맹휴업성사,출범식 성사

▶개최학교 조선대에 선전

-총여와 단여 프랑1개씩

-조선대 수고자보 1개씩

▶남녀대협 거리

-조선대와 이야기

▶출범식 당일날 쓸

손깃발 준비(선봉대에서)

- 각 대학별 준비

-빨강:전대 : 주한미군철거내용

노랑:조대 : 위안부문제해결

*chart 선전과
↓
강조적인 선전*

+ 강조적인 선전

파랑:목대 : 김대중퇴진
흰색:호대 : 여성실업문제해결
녹색:여수대 : 농가부채해결

8.조직화 내용과 방도

▶출범식의 태풍몰이-선봉대

-농활 해단식 및 남녀대협 결의대회를 통해서 선봉대의 결의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대중사업인 농활을 그냥 총화로만 끝내서는 안됩니다. 총화와 동시에 이후 투쟁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후속사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활을 갔던 여학생들이 함께 간 새내기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여학생회 두리에 묶여있는 새내기들을 선봉대로 결의시켜 오월투쟁의 선봉에 설수 있도록 합니다.

-각 단위의 조직화 구체적 목표를 꼭 세워냅시다.

-회의 구조에서 알려냅시다 : 중앙운영위/단대운영위/과운영위

▶여성단체와 각 대학 총여와 연대의 날을 마련, 출범식도 함께 준비합니다.

-말로만 연대투쟁을 하고 출범식에 초대만 하는 연대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 기층에서 각 단체와 실질적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출범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각 대학에서 직접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함께 서로의 투쟁의 모습을 보고 함께 느낄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함께 출범식 공연을 준비한다든지 하면서 출범식도 만들어 갑시다.

-초청장을 발송합니다 : 11일 각 대학에서 직접 발송

-출범식 전까지 한번의 만남은 꼭 가집시다 : 11일 정도에 연대단체에 연락을 하여 약속을 잡고 12일 정도 단위 주체1명씩과 함께 만남의 자리를 가집시다.

=이야기할 내용 : 소개-우리의 이야기(먼저 남녀대협 출범식, 오월투쟁일정과 그 흐름 등)-단체의 이야기-다음만남 약속 잡기

-연대 축하 성명 또는 출범식 평화보장 성명을 조직화합니다.

-출범식 당일 함께하기

-이후 후속만남 한번갖기

-연대 할 학교 정리

9.출범식 실현 방도(구체적 당일 일정)

전야제

(남녀대협 출범식)

-광택연과 여수대

광주여성회와 호대

선봉대의 결의

여성의 진화와 전대

여성농민회와 목포대 (나주여성농민회)

여성노동자회와 조대

(출범노란)

각 대학 총여회장 결의 발언
 의장님 용립
 -출범선언문 낭독)
 조통위 출범식
 남총련 의장님용립식

10.시기별 흐름 및 대학별 준비 지침

날짜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남여대협	포스터 만들기 지도사업		여대협 회의	초청장 발송	동맹휴업 여대협 유인물	제디오 시기	출범식 실무준비 총투표	동맹휴업	남녀대협 출범식 남총련 출범식
대학	대학티 제작			집중선전 시작	단체방문 의 날	이동총 여	막바지 준비	동맹휴업 최종조직 화	
선봉대	농활기간 조직화		농활해단 식 및 선 봉대결의	선봉대 본격활동 (선봉대 교양)	대학선전 대학 선 봉대 결 의대회	활동 시작			

※출범식 예산

이번에는 대학별로 그렇게 많은 분당금을 주지않고 각 대학에서 준비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여대협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서 대학총여에서 준비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대학이나 여대협이나 훨씬 재정적으로 부담이 적을거라 생각되서

- 유인물은 : 초안만 남여대협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은 학교별로
- 초청장은 : 남여대협에서
- 출범식 대학선전비용은 : 개최대학과 남여대협에서

연서
 < T

T제작비만 각 대학에서 원하는 별수만큼만 제작코자 하오니 그 값 그대로만 총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여대협 기본적 선전과 활동비 - 대학별로 4만원씩

자기 대학의 구도와 계획

1.의의와 목표

2.구체적 일정별 계획

3.의식화방도

4.조직화방도

출범식 총화서

1.출범식 계획에서 준비하기로 한 것을 얼마나 실현 시켰는가

2.여학단위 일꾼들이 이번 출범식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였는가

3.남여대협 출범식이 얼마나 학우들과 왔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4.남여대협 출범식을 준비한 조선대 여학단위는 어떤 성과점과 한계를 주었는지

5.우리의 내용성들을 얼마나 학우들한테 알리고 공감하게 했었던가

6.출범식에서 아쉬웠던 점

7.출범식에서 보람있거나 재미있었던 일

8.출범식 후속작업

출범식의 태풍몰이

12기 남녀대협 선봉대 활동계획

1. 들어가며

선봉대를 결의하자

선봉대는 특별한 사람만 결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학생회 일꾼이라면 누구든지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민해 봅시다. 여학생회가 잘되고 잘해야 하고 힘차게 살아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결의합시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선봉대입니다. 오월의 힘찬 투쟁을 이끌어올 남녀대협의 선봉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민중이 살 수 있고 조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2. 선봉대의 활동

▶ 시기

5월 10일-5월 30일

▶ 하루일정

7시 30분 아침모임

8시 아침선전

8시 30분 조회 및 하루계획

9시 아침식사

10시 강의실 선전 및 학우만나기

6시 저녁선전

6시 30분 저녁식사

7시 30분 교양/선전물 작성/문예배우기

9시 기숙사선전

10시 하루총화

10시 30분 귀가

▶ 규율

1. 절대적 시간엄수

2. 하루 1인 학우 3인 꼭 만나기

3. 선봉대 기간 동안 3개 강의실 꼭 책임지기

4. 꼭 총화하기

5. 꼭 교양내용 공부하기

3. 선전활동

▶ 아침선전 및 기숙사선전에 대해

자신의 결의만 확보된다면 아무리 학교와 집이 멀어도 아침선전을 사수해 낼 수 있습니다. 빼먹지 말고 언제나 선전에 함께 하는 선봉대가 됩시다. 아침 생활력 점검은 바로 아침선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하루 시간을 많이 버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전은 학우만나기를 대중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만나기 전에 꼭 오늘의 구호를 정리하고 어떤 내용으로 만날 것인지 정리합시다

(conf)

▶ 강의실선전에 대해

강의실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욕이나 먹지 않을까 목소리가 작으면 안되는데 하는 우려들. 이번에는 목이 아파서, 다음에는 시간에 늦어서, 그 다음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는 핑계들. 첫 시작을 하면 모두 없어집니다. 학우들은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용기를 냅시다. 처음 집회장소에서 주먹을 치켜들었던 그 용기를 다시 한번 발휘하여 강의실을 점령합시다. 1인 3개 강의실을 설정해서 꾸준히 선전할 수 있도록 합시다.

▶ 학우만나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자칫 빼먹고 마는 자칫 게을러지기 쉬운 활동입니다. 하루 3인 만나기 표를 만들어서 꼭 실천하고 총화합시다.

4. 선봉대 활동 흐름

10일 농활총화하면서 오월투쟁에 관련된 흐름파악,단위논의하기

11일 강의실,학우들만남 본격화하기,각 대학 선봉대 결의대회 갖기, 선봉대 결의서 쓰기

12일 과여부장들과 함께하는 하루만들기,기본적 교양내용 숙지하기

13일 새내기들과 함께하는 하루만들기,선전물 작성하기

14일 동맹휴업

15일,16일 출범식 및 국민대회

17일,18일 오월투쟁

-22일 군산투쟁 준비

-30일 전여대협 출범식, 한총련 출범식 준비

선봉대 결의서

저는 김대중정권 퇴진, 미제축출, 5월 투쟁을
맨 선두에서 이끌어 오기위해
삼여대협 선봉대로 힘차게 살것을 결외합니다.

선봉대 매일총화서

1. 오늘 하루의 계획은 어땠나요?

2. 선전은 어떻게 했나요?

3. 학우만나기는 어떻게 진행했나요?

4. 강의실선전은 어떻게 했나요?

5. 교양내용은 숙지했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6. 그 외에 하고 싶은 말